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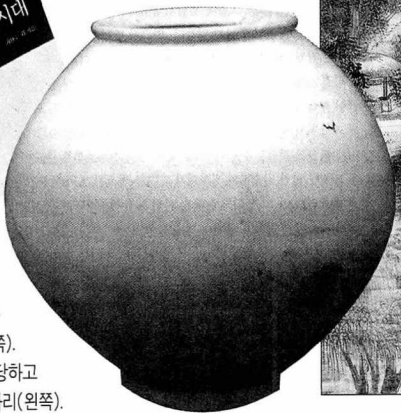
조선의 고유색 짙은 문화의 황금기

최완수 외 지음 《진경시대》

조선 특유의 문화를
꽃피운 황금기,
'진경시대'를 집중탐구한
이 책은 조선시대를
당쟁으로 얼룩진 역사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선 후기의 사상적 바탕인
조선성리학과 그것을
뿌리 삼아 가꾸어낸 조선
고유의 진경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 겹재 특유의 '진경산수화풍'이 대성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청풍계>(오른쪽).
· 옆지름과 높이가 1:1로 접근하는 당당하고
호방한 조선 고유의 달항아리(왼쪽).



'진경시대(眞景時代)'란 조선의 고유색 짙은 문화를 한껏 드러내던 조선 후기 문화절정기를 이른다. 숙종대에서 정조대에 이르는 약 125년간은 그야말로 예술과 학문에서 조선 특유의 문화를 꽃피운 황금기이기도 하다. 이 책은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각 부문에 고른 발전을 이룬 조선시대 '르네상스'기를 집중연구, 학문적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있다.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간송미술관)를 중심으로 최완수(간송미술관 연구실장) 정옥자(서울대 국사학) 유봉학(한신대 국사학) 지두환(국민대 국사학)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 이세영(한신대 국사학) 김기홍(간송미술관 연구위원) 오주석(한신대 국사학 강사) 강관식(한성대 회화과) 방병선(동국대 미술학과 강사) 등의 필자들이 참여했다.

조선 성리학을 뿌리 삼아 움튼 진경문화

진경문화는 조선 성리학을 뿌리 삼아 그 싹이 움텄다. 조선 전기, 중국풍이 만연하던 문화를 우리의 고유풍토에 적응시켜 나타난 고유이념이 조선 성리학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 고유의 것'에 대한 인식이 사회 각 문화에 넓게 퍼지기 시작했다. 조선이 곧 중화라는 '조선중화주의', 강한 조선의 주체성이 팽배해지면서 조선의 고유문화는 더욱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다.

영·정조대의 사상 문화적 혁신 움직임은 서울 주변의 경화시족층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진경시대 조선사회의 번영과 문예중흥의

토대를 이뤘다. 도시적 삶과 상공업 발전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진경문화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도시적 취향의 풍류나 상공업, 소비유품 등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당대 사회상의 축소로 나타난 것도 그 반증이다.

또한 억불정책으로 침체됐던 불교계에도 진경문화의 빛은 스며들었다. 승려와 문사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서신화답이 오고갔으며 승려들의 문집 간행도 두드러졌다. 선·교·염불의 삼학수행이 보편화하면서 경론 강의가 성행하기도 했다. 다산 정약용의 《대동선교고》 등 불교사를 정리하는 작업이나 김창홍의 《삼연집》 같은 불교에 관한 산문이 엮보이는 등 유자들이 불교를 이해하려는 경향도 보였다.

이 시기에는 경제도 성장하여 나라 전체의 살림은 넉넉한 시대였다. 양반지주와 양반작인, 서민지주, 부농, 빈농과 임노동자 등 빈부의 계층 분화가 나타났다. 서울은 정치의 중심지이자 유통경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해 경화시족이 대두하면서 위항지사와 함께 교육과 학문의 발전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들의 진경시문풍과 동국진경 등의 개성 있는 문화 창출은 조선문화의 생명력으로 자리하기도 했다.

글씨·그림 등에서 조선 고유의 기법도 창안

한편 조선 진경시대의 문화는 글씨·그림 등에서 뛰어난 조선 고유의 기법을 창출하기도 했다. 글씨에서는 한석봉체가 기본틀을

형성하면서 송시열, 송준길에 이어지는 양송체가 율곡학파의 기본서체로 자리잡았다. 서포 김만중은 한글소설로 《구운몽》《사씨남정기》를 쓰기 시작했고, 송강 정철에서 비롯한 한글가사는 내방가사로 자리잡았다.

그림에서는 겹재 정선이 고유화법인 진경산수화풍을 창안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산천을 세밀한 사실묘사와 선 굵은 붓놀림으로 아우른 진경산수화풍은 조선 풍속화로 이어져 조선 실제의 생활모습과 풍속, 풍물을 표현해내는 데 독자적인 경지를 이뤘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보이는 사실적 묘사와 해학적 표현은 새로운 특징으로 발전했다.

다양하고 폭넓은 발전을 거듭해가던 진경문화는 독자적인 고유문화가 빠지기 쉬운 고루함과 편벽성을 극복하기는 또다른 길을 찾게 된다. 18세기 후반 기존의 조선성리학을 비판, 극복하려는 젊은 학자군인 홍대용, 박지원 등은 청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조선문화를 다시 일으키자는 북학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조선 고유색을 짙게 드러내던 진경문화는 결국 북학을 이념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개혁 움직임으로 연결, 이후 실학과 북학문화로 이어지면서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조선시대를 당쟁으로 얼룩진 역사로만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조선 후기의 사상적 바탕인 조선 성리학과 그것을 토대로 가꾸어낸 조선 고유의 진경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 김지원 기자

둘째 개 / A5신 / 236면, 376면 / 9500원, 15,000원

인간 김홍도의 삶

오주석 지음 (단원 김홍도)



우리의 멋을 농익게 구사했던 단원 김홍도는 가장 조선적인 화가로 꼽힌다. 단원의 태평한 기상과 자그심 높은 화풍은 조선 후기 문예부흥에 당당한 몫으로 자리한다. 이 책은 김홍도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 정확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홍도 탄신 250주년(1995)을 기념하기 위한 기획전을 맡았던 저자(큐레이터, 서울대 강사)가 새롭게 발굴한 자료도 소개돼 있다.

우선 저자는 김홍도가 1812년에서 1818년 사이 어느해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806년 경 생을 마감했으며, 전해지는 것처럼 가난한 풍류화가 아니라 국왕(정조)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특급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힌다. 이십대 초반부터 일찌감치 그림으로 이름을 얻었고, 글씨와 문학에도 교양이 풍부해 당대를 주름잡던 예술인 학자와 어울렸다. 오랫동안 김홍도의 작품이 아닌 것으로 오해했던 용주사 대응보전의 불화는 이명기·김득신과의 합작품임을 확인하기도 한다. 풍채가 좋고 성품도 무난했으며 술과 해학을 무척 즐기는 현현장부였지만, 말년엔 잔병이 많아 고생했던 자취도 여기저기에 보인다.

무엇보다 이 책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 한국미의 전형을 이룬 '국민화가'로서 그 예술의 드높음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따뜻한 성품의 '인간 김홍도'의 삶을 이야기한다. (김지원)

열화당 / A5신 / 350면 / 22,000원